

## 21세기와 한국 섬유산업

### 1. 한국산업의 현주소

21세기 들어 한국경제는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을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지 9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1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1981년에 1만 달러를 달성하고 6년이 지난 1987년에는 2만달러를, 그리고 5년 후인 1992년에 3만 달러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쳐져 있다.

국민소득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한국산업은 19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래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미진하였다.

이에 비해 세계경제 환경은 지식정보혁명,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 및 지구환경보전 등 뉴트랜드에 따라 급변하고 있으며, 중국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동아시아 경쟁관계도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의 주도권 이행과정에서 첨단기술 집약적 산업에 특화하고 있는 선진국과 중·저급 기술 산업에 특화하고 있는 후진국 사이에서 nut-cracked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갈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혁신(innovation)”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화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 중국과의 격차는 4~7년에 불과한 급박한 상황에서, 향후 5~10년을 목표로 한 선제적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이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5~10년 이후 한국경제를 선도할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의 산학연관이 지혜를 모아 차세대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섬유산업

섬유산업은 공정별로 크게 원료합성방사, 방적, 제직, 염색가공, 봉제 및 제품성형으로 분류되며 품목별로는 섬유원료, 원사, 직/편물, 부직포, 의류, 인테리어, 산업용 섬유제품 등으로 분류된다. 방사기, 연사기, 방적기, 제직기, 염색기, 나염기, 연단기, 재단기 등의 섬유기계산업과 방사유, 염료, 가공제 등의 화학 산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 CAD, 시뮬레이션 등 전자산업과도 연관이 큰 산업이다. 또한, 생산구조가 원료·사·직물·염색·의류·제조·유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로 형성되어 있고 각 공정간의 원료·중간재 공급 등의 조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고용 창출효과가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공 산업이다.

섬유산업은 크게 의류용과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구분되는데 의류용 섬유산업은 섬유원료·사·직물·염색가공 분야에 해당되며, 산업용 섬유산업은 공업용, 토목용, 농업용, 의료용, 가정용 등 전 산업에서 사용되는 산업섬유자재를 총칭한다.

## 3. 우리나라의 섬유산업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지난 40여년간 수출 전략사업으로 성장,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저임금을 활용한 중·저가품을 대량생산, 대량 수출하는 전략을 구사해 온 결과 대내외적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한 1980년대 후반부터 가격경쟁력의 약화, 심각한 기능인력 부족현상, 수요의 다양화, 개성화 등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족, 상품기획능력과 마케팅능력의 부족, 패션디자인능력의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세계섬유수출 면에서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은 세계주요국 섬유수출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한국의 순위는 1위 서부유럽, 2위 중국, 3위 홍콩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국내 섬유산업의 세계 섬유수출 점유비중

|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 세계주요국 | 158,126 | 152,691 | 159,438 |

|      |        |        |        |
|------|--------|--------|--------|
| 한국   | 11,279 | 11,616 | 12,680 |
| 점유비중 | 7.1%   | 7.6%   | 8.0%   |
| 세계순위 | 7위     | 7위     | 4위     |

자료 : 2004년 화석연료(단위 : 백만 달러)

\* 세계 주요국 :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브라질, 서부유럽, 이태리,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 <표 2> 세계 석유 수요 및 1인당 소비량 전망

(단위 : 천톤, kg, %)

|               | 2000년(A) | 2005년  | 2010(B) | 연평균(B/A) |
|---------------|----------|--------|---------|----------|
| 석유수요(천톤)      | 53,140   | 62,836 | 73,792  | 3.3%     |
| 1인당 석유소비량(kg) | 8.7      | 9.7    | 10.8    | 2.2%     |

자료 : PCI(Petrochemical Institute)

세계 석유시장은 인구증가와 소득증대,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인해 향후 2010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1인당 석유소비량도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산업자재의 경량화, 고기능화, 다양화 등에 따라 산업용으로서의 용도가 확대되어 산업용 석유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석유소비량을 보면 98년 외환위기로 최저의 소비량을 보인 이후 99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2년에는 18.5kg을 소비하여 전년대비 8.0%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계 평균치보다는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 4. 국제 석유 시장에서의 경쟁

전기한 바와 같이 생산, 수출 및 소비측면에서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세계 위치는 양적으로 석유대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술, 마케팅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석유국의 산업상 특징과 그 경쟁력을 분석·열거해 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표 3> 주요 섬유국의 특징과 경쟁력 비교

(단위 : 억불)

|    | 수출액 | 수입액 | 특징                                               |
|----|-----|-----|--------------------------------------------------|
| 한국 | 187 | 55  | - 섬유수출 세계 4위(화섬 직물 1위)<br>- 중·저가품 → 고부가가치제품 증가   |
| 중국 | 535 | 168 | - 섬유수출 세계 1위(원면, 실크 생산 1위)<br>- 자국수요 충족 및 봉제품 수출 |
| 일본 | 82  | 258 | - 고부가가치, 차별화 패션제품 수출 위주<br>- 중저가품 수입에 의존         |
| 홍콩 | 379 | 302 | - 최대의 중계무역 중심지<br>- 봉제품 생산(중국 등 주변국 연계)          |

## 5. 우리 섬유산업의 문제점

### (1) OEM 수출의 대량생산 구조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주로 주문자상표 부착(OEM) 수출방식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 및 범용품 물량 위주의 수출구조로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상품기획능력이 부족하고 생산품목이 전문화·특화되지 못하여 범용품과 과당경쟁요소가 생존하고 있다.

### (2)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섬유제품의 수출물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단가는 하락하고 있어 업계의 채산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사업용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표 4> 섬유산업 연도별 수출단가 및 물량 추이

(단위 : USD/kg, 천톤)

| 구분   | 1997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수출단가 | 5.75  | 4.96  | 5.23  | 4.84  | 4.73  |
| 수출물량 | 3,257 | 3,511 | 3,593 | 3,322 | 3,313 |

한편, 산업용 섬유 분야에 있어 우리 경쟁력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소 취약한 편이다.

<표 5> 용도별 경쟁력 분석

| 구 분    | 의류용      |        | 인테리어 | 산업용 |
|--------|----------|--------|------|-----|
|        | 가격지향형범용품 | 차별화 제품 |      |     |
| 합성섬유   | △        | ■      | ■    | ▼   |
| 합성직물   | ○        | ■      | ■    | ▼   |
| 면방적사   | ■        | ○      | △    | ▼   |
| 면직물    | ■        | ○      | △    | ▼   |
| 의류(패션) | △        | ■      | -    | -   |
| 봉 제    | ▼        | △      | -    | -   |

○ 경쟁력 우수, △ 경쟁력 있음, ■ 다소취약, ▼ 경쟁력 저조

### (3) 중국의 도전

중국·아세안 등 후발국이 산업구조 고도화 및 품질향상, 선진국에 있어서 경기부진에 따른 저가품 선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섬유산업분야에서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급속히 확보하고 있다.

<표 6> 한·중 섬유산업의 수출액 비교

|                | 1999년  |        | 2000년  |        |
|----------------|--------|--------|--------|--------|
|                | 한국     | 중국     | 한국     | 중국     |
| 섬유류 수출액(백만 \$) | 17,344 | 44,297 | 18,727 | 53,523 |
| 세계시장 점유율       | 4.9    | 12.8   | 5.0    | 14.2   |

자료 : UN무역통계(중국 홍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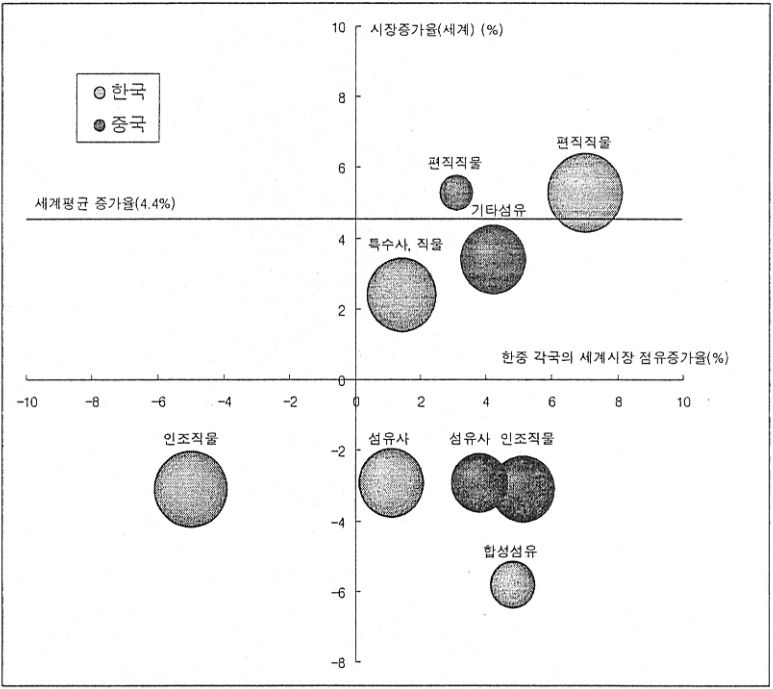
<표 7> 한·중 섬유산업 비중

| 품목      | 시장증가율<br>(%) | 세계시장 점유증가율(%) |     | 각국에서의 무역비중 |     |
|---------|--------------|---------------|-----|------------|-----|
|         |              | 한국            | 중국  | 한국         | 중국  |
| 편직직물    | 5.3          | 7.0           | 3.1 | 9위         | 46위 |
| 인조직물    | -3.1         | -5.0          | 5.1 | 8위         | 20위 |
| 섬유사     | -2.9         | 1.1           | 3.8 | 19위        | 27위 |
| 합성섬유    | -5.8         | 4.8           | -   | 38위        | -   |
| 특수사, 직물 | 2.4          | 1.4           | -   | 13위        | -   |
| 기타섬유    | 3.4          |               | 4.2 | -          | 18위 |

아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한·중 각국의 세계시장 점유증가율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각 분야의 시장 증가율을 나타낸다. (1996년 대비 2000년) 인조 직물과 섬유사 부문은 세계시장의 규모가 감소하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중국 경쟁이 치열한데 인조직물 분야에서는 우리의 점유율이 낮아지면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현저히 증가하여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에 밀리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섬유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편직 직물 분야에서 아직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들의 저임금에 바탕을 둔 가격경쟁력은 선진국 시

장 잡식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의 임금수준은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그림 1> 한·중 섬유산업 경쟁력 비교

<표 8> 세계 섬유사업의 시간당 임금 비교 (단위 : USD)

| 후발국   | 시간당 임금 | 경쟁국 | 시간당 임금 |
|-------|--------|-----|--------|
| 중국    | 0.69   | 한국  | 5.32   |
| 인도네시아 | 0.32   | 대만  | 7.23   |
| 인도    | 0.58   | 일본  | 26.1   |

자료 : Werner International, 2000년

#### (4) 첨단제품 생산 기술력 부족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 80% 수준이나 신소재, 염색 가공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은 취약하다. 산업용섬유의 경우 선진국 중심으로 생산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시장 수요는 매년 5.8%의 급속한 성장

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라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표 9> 주요국의 기술수준

|    | 선진국 | 한국 | 경쟁국 | 후개도국 |
|----|-----|----|-----|------|
| 화섬 | 100 | 85 | 80  | 60   |
| 면방 | 100 | 70 | 65  | 55   |
| 제직 | 100 | 65 | 65  | 50   |
| 염색 | 100 | 60 | 65  | 45   |

자료 : 산업연구원(경쟁국 : 대만/홍콩, 후개발도국 : 태국/인도네시아), 2002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섬유산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오면서 업스트림(Up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간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국내외 환경 변화에 강한 적응력을 갖고 있는 점, 190여 개국과의 교역을 통하여 쌓인 대외무역경험과 노하우 등과 같은 장점 또한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 미래지향적인 지식산업으로 전화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 섬유산업의 미래는 밝다는 할 것이다.